

“쓰임새 많은 배우 되고 싶어요”

조정석

영화 '형'서 사기전과 10범인 형 연기
“질투의 화신” 이화신 캐릭터는 큰 축복”



올 한해 가장 바쁜 배우를 꼽으라면 조정석을 빼놓을 수 없다.
에능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에 출연해 예능감을 뽐냈고 뮤지컬 ‘헤드워’로 무대에 올랐으며, TV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 짜질한 마초남 이화신으로 나와 최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그리고 오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형’으로 올 한해 대미를 장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조정석은 요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속스러운 듯 털어놨다.

“드라마 촬영할 때는 촬영장과 집만 오가서 실감하지 못했는데, 요즘 오프라인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인기를) 어느 정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격한 반응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하”
지난 6개월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그는 피곤한 기색이 가득했다. 그러나 새로 개봉하는 영화 ‘형’ 이야기를 꺼내자 바로 화색이 돌아왔다.

“‘형’은 사기전과 10범인 형과 전직 유도 국가대표 선수인 동생이 15년 만에 한집에 살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코미디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감동을 자아내는 전형적인 ‘착한 코미디 영화’다.”

조정석은 극 중 ‘양아치’인 데다 밍상 캐릭터로 나오지만, 특유의 너털함과 유머 연기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바뀌어놓았다.
“시나리오를 보고 처음에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이 형제애였죠. 제가 형이 2명이어서 그런지 더 실감 나게 다가오더라고요.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애를 다뤘기 때문에 이 영화가 대중한테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올해 36살인 조정석은 3남 1녀 중 막내다. 두 형과 각각 16살, 10살 차이가 난다. 큰 누나와는 19살 차이가 날 정도로 늦둥이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어릴 적 찍은 3형제 사진을 직접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뮤지컬 분야 스타였던 조정석은 영화 ‘건축학개론’(2012)에서 남동생 캐릭터로 스크린에 등장해 관객과 총무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관상’(2013), ‘역린’(2014), ‘나의 사랑 나의 신부’(2014)뿐만 아니라 TV 브라운관을



오가며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리는 중이다.

특히 ‘질투의 화신’ 속 이화신 캐릭터 덕분 여자 친구(거미)가 있는데도 여성 팬들로부터 처음으로 ‘섹시하다’는 말을 듣는다며 머쓱해했다. 조정석은 그러면서 이화신을 인생 캐릭터로 꼽는 데는 주저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서 산블리 인생 캐릭터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화신과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난 것은 배우로서 큰 축복이죠.”

조정석은 코미디 배우 이미지로 구축되는 것도 경계했다.
“저는 쓰임새가 많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이미지로 구축되는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차가진 선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할 겁니다.”

조정석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 배우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질투의 화신’에 함께 출연한 고경표에 대해 “평상시 모습은 귀엽고 애교가 많은 스타일인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 180도 달라져 정말 연기를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다”고 평했다.

또 ‘형’에서 동생으로 나온 도경수에 대해서는 “영민함과 흡수력, 풍부한 감성 등 배우로서 자질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다.
조정석은 영화 ‘형’ 홍보가 마무리되면 한동안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저는 원래 느긋한 성격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요. 혼자 거실에 앉아 TV도 보고, 건강검진도 해볼 생각이예요. 또 지도를 펼쳐 놓고 어디로 여행갈까 고민도 해야죠.”

조정석은 코미디 배우 이미지로 구축되는 것도 경계했다.
“저는 쓰임새가 많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이미지로 구축되는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차가진 선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할 겁니다.”

조정석은 코미디 배우 이미지로 구축되는 것도 경계했다.
“저는 쓰임새가 많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이미지로 구축되는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차가진 선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할 겁니다.”

조정석은 코미디 배우 이미지로 구축되는 것도 경계했다.
“저는 쓰임새가 많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다양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이미지로 구축되는 배우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차가진 선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할 겁니다.”

‘K팝스타’ 편성·참가자격 변경 성공적



첫방 시청률 12%... 전 시즌 웃도는 성적 기록

새롭게 돌아온 SBS TV의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6-더 라스트 찬스’가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

21일 시청률 조사회사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15분 방송된 ‘K팝스타 6’ 첫 무대는 전국 평균 12.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은 14.1%였다.
이는 전 시즌인 ‘K팝스타5’의 첫 방송 시청률 11.5%를 웃도는 성적이다.
마지막 시즌임을 선언한 ‘K팝스타6’는 일요일 오후 5~6시였던 방송 시간대를 밤 9시 이후로 옮겼고, 참가 자격 조건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변신을 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최연소 참가자인 열살 소녀 이가도, 미국 텍사스에서 온 기타 소녀 이성은, ‘K팝스타5’에 참가했던 유재이의 동생 유지니 등 어리고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참가 자격 조건을 없앤 만큼 소속사가 있는 연습생이거나 이미 가수로 데뷔한 참가자들도 다수 무대에 올랐다.

특히 걸그룹 더 씨야의 메인보컬로 활동했던 성유진, ‘K팝스타2’를 거쳐 걸그룹 디아드로 데뷔했던 전민주, 힙합그룹 세발까마귀의 보컬 훈재이 등 나름의 사정으로 팀이 해체돼 꿈을 미처 펼쳐보지 못한 가수들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규정은 바뀌었지만, 양현석, 박진영, 유혜열이 맡은 심사와 전반적인 진행은 이전 시즌과 다름없이 차분한 편이었다.

한편,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은 이날 배우 김유정을 앞세워 17.5%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유정과 떠나는 유쾌한 수학여행 ‘잇잡아요~ 유정이예요’ 마지막 이야기로 꾸며진 방송에서 김유정은 상쾌한 웃음을 줬다.

토요일(19일) 저녁 방송된 MBC TV ‘무한도전’은 합력으로 우리 역사를 풀어내는 ‘역사 X 힙합 프로젝트-위대한 유산’ 두번째 이야기를 그렸다. 유명 한국사 강사인 설민석은 임진왜란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주인이 돼 나라를 지키는 국민이었다고 강조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격양된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냈다.

일요일(20일) 저녁 방송된 MBC TV ‘일밤-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은 시청률 11.6%, ‘일밤-리얼 임대 프로젝트 진짜사나이2’는 수도권 기준 10.3%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인 SBS TV ‘일요일이 좋다’의 ‘판타스틱듀오’와 ‘런닝맨’은 6.0%와 6.2%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월화특별기획 (불야성)(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선다큐 (그래드 행복한 학교 가는길)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전 유레카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	00 1대 100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다큐 공감 55 코리아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러 30 푸르기 식사교실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아빠가 불러주는 이야기 특목
3	05 특집다큐 행복한 나눔의 밤상, 푸드뱅크(재) 55 튜튼생활제조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지원	00 MBC 뉴스 10 뚝! 키크스쿨 55 응개 소나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유류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맛칼나는 전통시장 푸드쇼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0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맨 인 블랙박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백세시대 2부작 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특별기획 (불야성)	00 월화드라마 (남인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시장기행)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뚱뚱영 유치원1~2 08:30 열마 까투리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윙스 09:30 이영!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즐거운 인생, 제시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돼지고기 전골과 상추 결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재) 12:40 지식체널 12:45 숲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스백산에 핀 화염의 꽃, 부석사)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오솔 상지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뚱뚱영 유치원1~2(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이!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미얀마, 축제의 땅을 밟다 2부 인파, 축의 성지, 파용도우) 21:30 한국기행 (가치마라 가을 2부 하늘 아래 무릉도원) 21:50 EBS 다큐프라임 (교육대학 시험 -공무원의 탄생: 300일의 기록)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음 10월 23일 戊申)

	48년생 장애 요소가 나타나겠지만 손을 쓰면 곧 수습되리라. 60년생 거의 똑같은 국량이 반복되면서 다소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운세이다. 72년생 중차대한 것을 이행하게 된다. 84년생 생 갈금하게 처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5, 73		42년생 가능성은 농후하니 실행에 옮겨도 지장이 없다. 54년생 현재의 면모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의 추세까지 감안하는 것이 맞다. 66년생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78년생 얼마나 겁이 다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1, 71
	49년생 의외의 결과물 앞에서 매우 기뻐하는 태형이다. 61년생 지금 상태로 내버려 두면 단편적 문제만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해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73년생 당면 과제부터 점검하자. 85년생 현명한 결단이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 행운의 숫자 : 88, 33		43년생 당해 사항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중한 것이니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 55년생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67년생 지속가능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79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53, 91
	50년생 초심을 잃지 말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62년생 상호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74년생 지리멸렬했던 소강 상태를 지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86년생 예방만이 안전을 도모하라. 행운의 숫자 : 86, 10		44년생 시석이 반이니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56년생 기한을 지난다면 큰일나게 될 것이다. 68년생 누적돼 왔던 것이 모양새를 갖추게 되리라. 80년생 실연은 상태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행운의 숫자 : 16, 63
	51년생 강구한다면 경제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직업적인 것에 얽매지 말고 대국을 바라보자. 75년생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87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0, 56		45년생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불만해할 필요도 없고 방심해서도 아니 된다. 57년생 소신껏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9년생 의외의 탈이 생겨서 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81년생 잔란한 영광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68, 67
	40년생 무난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52년생 절제한다면 성숙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 64년생 머지않아 가다가 잡힌다. 76년생 상호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낫겠다. 88년생 의외로 쉽게 결정된다. 행운의 숫자 : 12, 34		46년생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58년생 가는 말이 고야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70년생 활동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 있다. 82년생 현상 유지하는데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83, 18
	41년생 차원피외 미루다가는 손해를 본다. 53년생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게 한다. 65년생 일반적인 방법의 채택이 무난하다. 77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편안해질 것이다. 89년생 재고하라. 행운의 숫자 : 47, 02		47년생 수용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겠다. 59년생 재물이 즐비하니 취하는 이만도 얼마가 되리라. 71년생 숙단한다면 머지않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83년생 강함과 유연함을 타격적으로 병행하라. 행운의 숫자 : 27, 1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